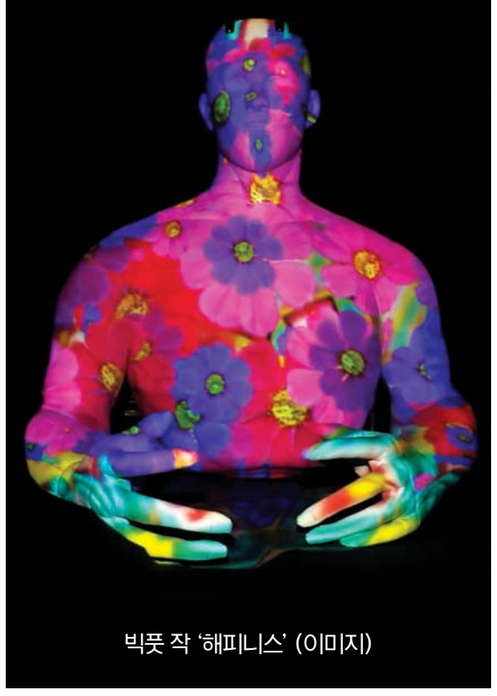
‘빛’ 놀이터에서 즐기는 미디어아트

14~18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23개국 102명 참여…본전시·투어전 등
ACC·국윤 미술관 등 20여 곳서 진행
‘광주의 빛’ 주제…파사드·스탬프투어 등


빅풋 작 ‘해피니스’ (이미지)

‘가을밤, 미디어아트 놀이터에 초대합니다.’

광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다. 내년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역할을 할 AMT센터가 완공되면 미디어 아트는 광주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대표 미디어 아트 행사인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온다. 지난해까지 광주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했지만 올해는 광주시가 직접 페스티벌을 추켜들면서 대중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실내전시 위주로 진행되던 데서 벗어나 ‘광장’으로 전시를 끌고 나왔고, 광주 시내 갤러리 곳곳을 활용하며 관람객들이 광주 도심을 산책하듯 거닐며 미디어아트와 좀 더 친숙하도록 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 주최로 참여, 본격적인 협업이 진행되면서 5·18민주광장을 비롯해 전당 곳곳이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전당이 자체 진행중인 ‘야광(夜光) 전당’ 프로젝트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더 푸짐한 상차림이 마련됐다.

202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과 국윤미술관 등 지역 미술관과 대안 공간 20여곳 등 광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컨셉은 ‘미디어아트 놀이터프로젝트’로 미디어아트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기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했다.

이번 행사는 본전시, 국제교류전, 특별전-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투어전, 대학생 공모전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익 기획자가 총감독을 맡고 김병헌·선영현·송지윤·김정훈 등이 운영감독과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해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주제는 ‘광주의 빛-빛과 공존의 미학’이며 23개국 10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광장, 하늘정원 등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는 본 전시에는 지역을 포함한 국내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13명의 작품이 설치된다. 정정주 작가의 ‘광주의 빛’, 빅풋의 ‘해피니스’, 정선휘의 ‘삶 속의 풍경’, 박상화의 ‘사유의 정원’, 정운학의 ‘종이집’, 김형숙의 ‘근본적인 원칙’ 을 비롯해 이기성·황정후·이정록·조성태·예술인연합 AAA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광주의 빛’도 눈길을 끈다. 5월 항쟁의 생생한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 벽면을 비디오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활용한 이번 전시에서는 임용현의 ‘슬프고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하석준의 ‘시간의 주름’, DATE+의 ‘광주의 빛’ 등 세 작품이 상영된다. 이 중 임용현 작가의 작품은 5·18기록관에 기증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전 ‘공존의 노래’가 열린다. 오스트리아 린츠, 프랑스 앙기엥 레벵, 미국 오스틴, 일본 삿포로 등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대표하는 13개국 13개 도시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또 문화전당이 올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창제작 사업 ‘야광(夜光) 전당’의 주 컨텐츠인 인터렉티브 아트 ‘힐링 포레스트’, ‘꽃과 나비의 향연’, ‘피스베어’, ‘빛의 연못’, ‘평화의 달’ 등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이 두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광주 전역을 미디어 아트 축제 현장으로 만든다는 복안에 따라 아시아, 미국 등 11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투어전 등은 9개의 미술관과 7개 대안공간,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아트광주(온라인), 아트피크닉, GSAF광주소셜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운영한다. 국윤미술관(유지원·아시트 포더), 드영미술관(이매리·바오 유웨이), 무등현대미술관(조정호·마크 살바투스)을 비롯해 소암미술관, 오월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이강하미술관 등이 참여했다.

또 전국 공모로 진행되는 청년작가 루키전(은암미술관)과 차세대 미디어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대학생 공모전(주안미술관)이 이번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다.

14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서막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미디어 아트도 즐기고 선물도 받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각 전시장을 방문해 13곳 이상의 도장을 받아오면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본전시와, 국제 교류전, 미디어파사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만날 수 있으며 투어전과 루키전, 대학생 공모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필수.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석준 작 ‘시간의 주름’ (이미지)

가을밤, 열린 무대

‘광주예총 공연아트페스티벌’ 14일 ACC 예술극장2

깊어가는 가을밤, 문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회장 임원식)가 주최하는 ‘광주예총 제11회공연아트페스티벌’(아트페스티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열린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아트페스티벌은 10개 협회단체(건축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예, 연극, 영화, 음악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아트페스티벌은 열린무대, 퍼포먼스 등을 망라한 종합예술 축제로 장르 벽을 넘어 공동 장으로 교류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채널 ‘광주시 예총’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되며, 총감독은 함태선(광주국악협회회장), 연출은 장호준씨가 맡았다.

먼저, 영화인협회 애니메이션 드로잉쇼와 찰리채플린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더빙쇼 공연을 시작으로 무용협회 박주상&bun무용단의 희생의 미학이 펼쳐진다. 이어 음악협회 실내 앙상블공연, 연극협회 극단 바람꽃의 오월의 봄날이 관객을 맞는다.

연예협회에서는 2013년 결성돼 한국을 대표하는 락밴드 워킹 애프터 유와, 대표적인 트로트가수 진국이 등이 출연해 무대를 채운다.

특히 국악협회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춤 ‘5월의 그곳’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랜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들의 못다 핀 꿈을 그리며 천상에서의 행복을 기리는 기원무 ‘꽃잎’이 펼쳐지고, 시대 아픔을 극복하고 상생을 희원하는 국악콜라보 ‘상생’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초청 공연으로 평양예술단이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북한식으로 표현한 ‘박편무’, ‘물동이춤’, ‘꽃의 향연’ 등을 비롯해 중창 트로트메들리, 통일 소원가 등을 들려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바람꽃의 ‘오월의 봄날’ 공연 장면.

다양한 아트 주얼리의 세계

송숙남 교수 13번째 개인전, 22일까지 호심미술관

송숙남(광주대 패션·주얼리학부 교수) 작가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송 작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판화, 드로잉, 회화, 천연보석과 18K를 소재로 한 아트 주얼리 등 30여년에 걸쳐 제작한 130여점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선보였었다.

1년만에 다시 갖는 이번 13번째 개인전에서는 간결한 기호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경쾌한 느낌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과 회화의 선묘를 입체화한 아트 주얼리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금속과 돌을 소재로 삼은 그의 주얼리 작품은 자유로움이 꿈틀거리는 유연한 곡선과 간결함이 어우러져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내며 색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미술평론가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올해 선보인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자유자재로 꿈틀거리는 유연한 곡선은, 더욱 세련되고 간결하게 압축돼 있다”며 “작품들은 생동하는 역동적 생명의 포름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말했다.

‘돌풍’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송 작가는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에서 판화 과정을,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석판화 과정을 공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아시아문화원 ACC 정책자문위원, 진월금속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루나틱’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이엘프러스의 뮤지컬 ‘루나틱〈사진〉’이 1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추진하는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두 번째 공연이다.

‘루나틱’은 정신과 의사 굿 닥터의 특별한 처방전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그리는 힐링 코미디다. 2004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의 시초가 된 작품으로 지난 16년간 활발히 공연되어 온 장수 창작뮤지컬이다.

한편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0여 석만 개방할 예정이며, 애니메이션 크루의 ‘춤추는 미술관’(22일), 메타댄스프로젝트의 ‘카르미나 부라나’(29일)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8세 이상 관람,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